



金洪燦 / 廣林電子工業(株)會長/本會 非常勤副會長

## '80年代를 보내면서

지난 數年間 화려한 기록들을 남기며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 經濟는 이제 '80年代를 장식하는 '89年 마지막 문턱에서 주춤하며 成長率은 두자리 숫자에서 7% 정도 또는 그 이하, 輸出은 당초 예상치 680억불보다 크게 줄어 620억불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年初 우려하였던 바로써 막상 現實로 다가오며 우리 一線 企業經營人들은 이 어려운 現實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고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돌아켜보면 '70年代 초·중반부터 基礎的인 범용 技術로 시작된 우리나라 電子産業이 '80年代에 들어서서 급속한 성장을 시현하며 급기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한 最尖端 技術 製品으로 世界市場에 발돋움하여 生産額 기준으로 '87年에 174억불로 世界 6位(대한상의자료)로, '88년에는 韓國製造業中 1위의 産業으로 산업발전의 궤적속에서 그 속도를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急成長하여 왔고 특히 '86~'88年의 3年間은 주변상황의 호전으로 실로 보기드문 호황을 누려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89년도에 들어서서 더한층 강화된 國際的인 保護貿易

장벽과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 및 全産業에 확산된 勞使紛糾 등은 화려했던 成長의 기록들을 차츰 무너뜨리고 있으며 비단 電子産業 뿐 아니라 經濟全般에 걸쳐 퇴조의 위기감을 팽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제조업의 成長率이 '88年 3/4분기 중 15.7%이었던 것이 '89年 3/4분기에 4.3%에 그치고 있으며(한국은행 자료) 電子電氣製品의 輸出은 지난 10월 중 成長이 마이너스 5%로서 불황때 2.3% 감소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급박한 역전은 高度成長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狀況結合 중의 하나로서 그동안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지난 '70~'80년대에 오늘의 우리 經濟로 成長시켜온 저력의 主人公들인 우리는 오히려 이 어려움에 의연히 대처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리하면 더한층 응집된 추진력으로서 승화되어 이 나라를 금후 10년이내에 世界一流의 先進國 대열에 진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90年代를 펼쳐 나가자면 우선 우리 企業人들 뿐만 아니라 國家全體가 技術開發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과감한 投資를 바탕으로한 技術開發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勞使의 슬기로운 화합에 의한 단결된 원동력이 있어야만 成長의 추진력이 형성될 수 있고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서로가 투쟁의 상대가 아닌 공동체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努力들 위에 더 기대해 보는 것은 최근 經濟活性化를 위해 취한 일련의 政府조치와 같은 政府의 역동적인 기관차 역할입니다.

끝으로 電子産業에 종사하는 모든분들께서 왕성한 저력으로 이 시대의 역경을 극복하고 더한층 정진하시길 기대하오며 다가오는 '90年代에도 신의가호와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